

타지 전입 시민 90% 이상 “순천에 이사오길 잘했다”

생태환경·주거여건 ‘만족’...일자리는 ‘숙제’

순천시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21일까지 25일 동안 관외에서 전입한 시민 5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순천 전입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모바일 설문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중 69.2%가 순천 생활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고 보통 21.1%, 불만족은 9.7%가 응답하였다.

순천 생활 만족도 설문은 생태환경, 주거여건, 대중교통·도로, 문화·체육시설, 교육환경 등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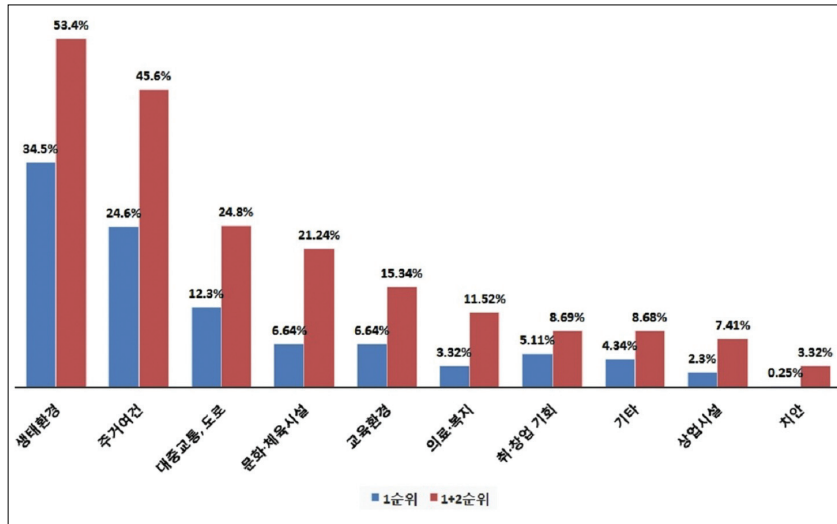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그 중 생태환경이 53.4% 응답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그리고 주거여건이 45.6%, 대중교통·도로가 24.8%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도외 전입자는 생태환경을, 도내 전입자는 주거여건을 주요 만족요인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병원 등 의료분야와 일자리 분야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시민의 정



착을 위해 순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분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39.9%), 문화시설·프로그램 확대(27.8%), 주

거여건 개선(25.5%) 순으로 집계되었다.

중점 추진 분야에 대한 세부 의견으로는 △청년·경력 단절 여성·중장년층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극·뮤지컬 등 공연 활성화, 박물관·예술센터 등 건립 △주택 가격 안정화,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노후 건물 개보수 등이 제안되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11개 분야, 67개 사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부서별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과역 백일1지구 지적재조사 1차 경계결정

고흥군은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과역 백일1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지난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역 백일1지구는 2019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토지현황 조사 및 지적측량 등을 실시하였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군별 경계결정위원회는 그동안 추진했던 332필지 689,725㎡에 대한 경계결정 및 의견이 접수된 17필지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

이번에 결정된 내용은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이의신청 등을 거쳐 경계를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최근 어린이 전래동화 특화 도서관으로 새단장을 마친 ‘여수시립울촌도서관 재개관식’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여수시립울촌도서관 ‘새단장’

어린이 전래동화 특화...국비 15억원 투입 8개월간 리모델링

여수시립울촌도서관이 어린이 전래동화 특화 도서관으로 새단장을 마쳤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권오봉 여수시장을 비롯한 울촌면 기관단체장, 주민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촌도서관 재개관 기념행사를 열었다.

2005년 개관해 올해로 15년 된 울촌도서관은 내진성능과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등 1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간 내진보강 및 노후시설 개선과 어린이 중심 편의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지난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새 단장한 도서관 1층은 ‘전래

동화’ 콘텐츠에 VR, AR, 인터랙티브, 크로마키 포토존 등 IT기술을 반영한 체험관과 자료실이 들어서 다양한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2층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실, 학습실, 다목적실, 휴게공간으로 조성됐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을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앞으로도 울촌도서관이 책으로 성장하는 공간,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여수시, MICE산업 이끌 전문인력 양성...‘서포터즈’ 모집

7월~11월 역량강화교육...26일까지 참여자 모집

품격 있는 컨벤션 시설과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 맛깔난 음식 등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최적의 마이스 개최지로 평가받고 있는 여수시가 MICE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나섰다.

여수시는 MICE(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활성화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전문화와 홍보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역량 강화 교육을 거쳐 ‘여수 MICE 서포터즈’를 선발한다.

교육과정 80% 이상 이수자 중에서 마이스 서포터즈로 최종 20

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은 MICE종사자 및 업계 취업희망자, 관련학과 학생을 중심으로 통역, 문화관광해설사, 시민 등 MICE산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40명 내외이며, 매일 1회씩 관내 마이스 시설에서 저명한 강사의 역량강화 교육과 마이스 시설 답사를 진행한다. 7월 1일 고양 컨벤션뷰로 이상원 단장의 팬데믹 이후의 MICE산업’을 주제로 첫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해 11월까지 총 7회 교육을 실시한다.

신청은 26일까지이며, 여수시를



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를 작성해 이메일(honam@kakao.com)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투자박람회과(☎061-659-3465)로 하면 된다.

아울러 여수 마이스 서포터즈블로그를 제작해 여수와 마이스자원을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공식 인스타그램 개설

독서문화행사·맞춤형 독서콘텐츠·도서관 소식 등 제공

광양희망도서관은 코로나19의 여파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온라인 소통 강화에 나섰다.

희망도서관은 어린이와 30~40대 부모가 주 이용객으로 SNS를 이용해 교류를 넓히고 도서관 소

식을 홍보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

인스타그램에는 매주 입수되는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를 비롯해 주제별 추천도서와 독서문화행사, 도서관 최신 소식 등 다양한 콘텐츠가 수시로 업로드될 예정이다.

또한 영유아 부모들을 위해 집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림책 읽어주는 법, 책 놀이 등 독서놀이 관련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인스타그램 오픈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팔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희망도서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인 ‘광양희망도서관’을 팔로우하고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아이스크림 기프트콘을 증정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착한 임대인·중소에 광양시 7월 재산세 감면

광양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정한 착한 임대인과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에 7월 건축물 재산세를 감면한다.

착한임대인에게는 최대 50%까지, 중소기업에는 75%까지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정한 임대인으로,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한다.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하고, 3개월을 초과한 경우 인하율을 가산해 적용한다.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전년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에는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25%~75%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장성진품한우식육식당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1437-56 TEL : 061)394-0092